종교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562-404-0027)로 알려주세요.

장애인장학복지기금 수여
남가주밀알선교단

남가주밀알선교단(단장 이종희 목사)은 지난 12일 부에나파크에 있는 갈보리선교교회(담임목사 심상은)에서 장애인장학복지기금 수여식을 열고 총 84명에게 10만 4천200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2001년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이 출범한 후 이날까지 지급한 누적 장학금은 274만 8청 200달러에 이른다. 이날 행사에서 남가주밀알선교단 부이사장 심상은 목사(갈보리선교교회 담임)는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 (이사야 43:1-7)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 "장애가 있어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그분이 늘 함께하시는, 크고 존귀한 가치를 지닌 존재들이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귀하게 창조된 만큼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과 세상을 위한 일을 잘 감당하기 바란다." 고 말했다.

이종희 단장은 "장학금은 지난해 12월에 개최된 '밀알의 밤' 을 통해 마련됐다." 며 "적극 성원해주고, 장학 재정이 채워질 수 있도록 협력해준 후원자들, 교회, 단체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전한다. 특히 많은 분들의 사랑과 정성으로 이번에 장학금을 받게 된 84명의 학생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육 간에 더욱 강건하여 보다 큰 소망과 비전을 갖고 학업에 정진해 주기 바란다." 고 말했다.

▶ 문의: (562) 229-0001

찬양 집회
원하트 미니스트리

원하트 미니스트리가(Oneheart Ministry, 대표 피터 박 목사, 7037 Orangethorpe Ave, Buena Park, CA 90621)가 3월 마지막 주 예배를 시작으로 현장 예배를 시작한다. 원하트 미니스트리는 이달 26일(토) 오후 7시, 코로나19 사태로 찬양과 예배에 목말랐을 성도들을 위해 찬양 집회를 연다. 또 4월부터는 화요 모임을 재개한다. 피터 박 목사는 "찬양과 예배를 사모하는 분은 누구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 며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성령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 문의: myoneheartministry@gmail.com

창문이 열려 있는 집 (다니엘 6:10-15)

다니엘은 BC 605년에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간 소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막대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은 불탔으며 모든 백성들은 죽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서 붙들려 가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부모형제 다 잃고 나라가 망하며 국가의 위기가 오는 이런 절망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여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지혜는 어떤 바벨론 사람들의 지혜로도 따를 수 없었고 그는 그 이후로도 바벨론 나라만 아닌 메대, 바사에서도 계속하여 총리가 되고 온 세계를 움직이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의 특징은 본문에 나오는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항상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루도 빠짐이 없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아름다운 시절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의 길을 인도하시리라는 큰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매일 세 번씩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다니엘과 같이 기도의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을 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새벽기도는 창문을 여는 시간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창문도 열립니다. 영적으로 승리한 모든 성도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열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죄악의 창문, 유혹의 창문을 열어 놓습니다. 향락과 술 취함과 음란과 방탕의 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출세하고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기도의 문을 닫고 내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 받을수록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며, 은혜 받을수록 창문을 열어서 주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어마어마한 음모 속에서도 다니엘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시편 6편 9절에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다." 고 했습니다. 역대하 6장 21절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신다." 고 했습니다. 시편 31편 2절에도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니" 라고 했고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도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신다." 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예수 믿으면, 기도하면, 창문을 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향하여 창문을 연 사람은 허망하고 헛된 세상을 경험할 뿐입니다.

누군가 세상은 일방통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는 양방통행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언제나 기도한 것만큼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부요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부요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은 늘 용서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십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지난날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

누구든지 앞으로 나가면 승리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치료받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죄를 이기고 우리 자신을 이기고 우리의 온갖 불의와 교만과 악한 마음을 이기고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독수리 같은 새 힘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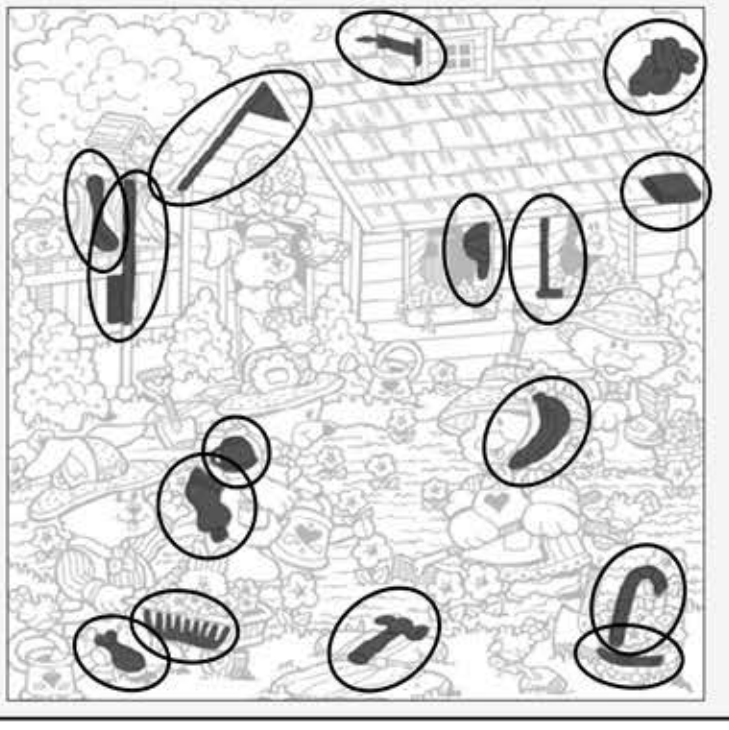
-김삼환 목사-

라인댄스 초,중급 반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
배우기 쉽고,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

장소
성공회 가든그로브교회 강당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CA 92844
가든그로브 아리랑 마켓 옆

시간 매주 수-목-금요일
오전10시30분

☎ 문의전화 **(562)760-3406** 에스터 장

숨은그림찾기 정답